

조선침략 전야의 일본 정보

米谷均

머리말

- 남방 루트에 의한 征明계획 정보
- 조선통신사의 來日을 둘러싼 일본 측의 해석
- 명·조선 양국 관계에게 미친 영향과 충격

맺음말을 대신해

【史料原文】

【토론녹취문】

머리말

豊臣정권이 1592년 조선 침략을 결행하기 이전에 그 최종 목표인 明 정복 계획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폭 넓게 선전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1589년에 일본 방문한 琉球 사절이나, 1590년에 방문한 조선통신사 및 인도 副王 사절에 대해서 秀吉는 國書로서 征明의 포부를 전하고 있었으며, 1591년에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사자를 보내 정명 전쟁을 가까운 시일 내에 결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¹⁾ 이러한 정보는 조선으로부터 북경으로 알려지게 되는 북방 루트와 琉球나 제일 중국인에 의해 중국 강남 지방에 알려지게 되는 남방 루트를 통해 이속고 명에 도달하였고, 각국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된 사정 속에는 양자의 정보에 서로 어긋남 하는 점이 많이 있었고, 특히 남방 루트의 정보 속에는 상당한 오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還지나海地域은 人・物의 왕래와 함께 진위를 알 수 없는 流言風說이 난무하는 “情

1) 北島万次,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外交文書にみる對外認識」(校倉書房, 1990年).

報의 海”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정확한 정보보다도 잘못된 정보는 자칫하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깊게 침투하여 향간에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당사자 이외의 제삼자에 의해서 출발된 정보라면 신빙성이 높은 “객관적인 정보”로서 받아들여져 보다 큰 파괴력을 발휘하는 일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궁극적 오인 정보의 하나로서 조선침략 이전에 각지에서 유포되어 있던 “조선의 征明嚮導” 정보에 주목하여 이 당시에 일본의 유사 정보의 전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²⁾

1. 남방 루트에 의한 征明계획 정보

우선, 琉球관인·明人海商·明人괴로인 등에 의해 남방 루트를 거쳐 명에 알려진 秀吉의 征明계획 정보가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그들에 의한 일본 정보는 侯継高「全浙兵制考」<補註1>(국립공무서관 내각문고, 史198-14)권2의 부록「近報倭警」속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어 있다.

《報①》琉球國長史 鄭廻의 陳報(萬曆19年 <1591> 4月)

《報②》陳申의 陳報(萬曆19年 <1591> 4月)

《報③》蘇八의 供述(萬曆19年 <1591> 9月)

《報④》朱均旺의 陳報(萬曆20年 <1592> 3月?)

《報⑤》朱均旺의 供述(萬曆20年 <1592> 3月)

《報⑥》許儀後·郭國安의 連名 陳報(萬曆19年 <1591> 9月)

「(緒言)」陳日本國之詳」「陳日本入寇之由」「陳禦寇之策」「陳日本關白之由」「陳日本六十六州之名」「(追記)」

2) 이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①渡辺三男, 《譯註日本考》(大東出版社, 1943年), ②石原道博, 《文祿・慶長の役》, 「中國側からみた万曆朝鮮の役」「朝鮮側からみた壬辰丁酉の役」(塙書房, 1963年), ③中村榮孝, 「壬辰倭亂の發端と日本の「假道入明」交渉」(《朝鮮學報》70, 1974年), ④松浦章, 「明代海商と秀吉“入寇大明”の情報」(末永先生米壽記念會編, 《末永先生米壽記念獻呈論文集》坤, 奈良明新社, 1985年), ⑤管寧, 「秀吉の朝鮮侵略と許儀後」(《日本史研究》298, 1987年), ⑥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壬辰倭亂前夜の明と朝鮮」(吉川弘文館, 1995年), ⑦鄭樸生, 《明・日關係史の研究》, 「秀吉の侵略準備とその哨報」(雄山閣, 1995年), ⑧増田勝機, 「歸化人汾陽理心(中國名郭國安)について」(鹿兒島短期大學, 《研究紀要》57, 1996年), ⑨三木聰, 「福建巡撫許孚遠の謀略—豊臣秀吉の「征明」をめぐる—」(高知大學人文學部, 《人文科學研究》4, 1996年), ⑩上原兼善, 《幕藩制形成期の琉球支配》, 「豊臣政權の朝鮮出兵と琉球國」(吉川弘文館, 2001年).

상기 6명의 정보 제공자에 대한 출신을 정리해보면, 鄭廻³⁾은 琉球의 중국계 관리(久米村 華人), 陳申⁴⁾은 福建海商, 朱均旺⁵⁾과 許儀後⁶⁾는 강서성 출신의 福建海商, 蘇八⁷⁾은 절강성의 어민이다. 陳申은 선박 좌초로 인하여 琉球에 임시 거처하였고, 朱均旺·許儀後·郭國安⁸⁾·蘇八은 왜구에 의해 薩摩에 연행되어 각각 일본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陳申·蘇八·朱均旺 3명이 조국으로의 귀환에 성공하여 긴박한 일본 정세를 명에 전하게 된 것이다.

정보 제공의 경위는 이하와 같다. 《보①》《보②》는 만력 19년 〈1591〉 봄, 진공선에 편승하여 琉球로부터 福州에 귀환한 陳申에 의해 명의 관헌에 제출되었다. 《보③》은 만력 19년 〈1591〉 4월, 루손을 경유해 복건성 漳州에 귀환한 蘇八에 대해, 동년 8월에 절강성 항주의 관헌이 심문을 실시해 청취한 공술서이다. 《보⑥》은 만력 19년 〈1591〉 9월, 薩摩에 잔류하고 있던 許儀後가 동료 郭國安과 함께 연명으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해 〈1592〉 1월 16일, 漳州的 상선을 이용해 명으로 향한 朱均旺에 맡겨졌다. 《보④》는 만력 20년 〈1592〉 2월 28일에 福建省 大津港에 상륙한 朱均旺이 福州의 관헌에 의해 심문받았을 때에 제출된 陳報이며, 《보⑤》는 그 때에 청취된 공술서이다. 그 당시 심문했을 때, 朱均旺은 許儀後로부터 건네받고 있던 《보⑥》을 관헌에 봉정했다.

상기 6통의 「近報倭警」에는 모두 흥미로운 일본 유사 관련 정보가 실려 있다. 참고로 그들이 秀吉의 征明계획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은 鄭廻·陳申의 경우는 琉球에서, 蘇八은 平戸 내지는 薩摩에서, 許儀後는 京都에서, 朱均旺은 薩摩에서 이것을 안 듯하며, 蘇八과 許儀後는 秀吉를 직접적으로 瞥見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秀吉의 征明전쟁에 대한 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풍문을 전하고 있다.

【사료 1】 《보②》陳申의 陳報

- 3) 鄭廻에 대해서는 池宮正治·小渡清孝·田名眞之, 《久米村—歴史と人物—》(ひるぎ社, 1993年), 152~153쪽을 참조.
- 4) 陳申에 대해서는 注(2)의 ④松浦論文, 1720쪽, 注(2)의 ⑤管論文, 42~43쪽을 참조.
- 5) 朱均旺에 대해서는 注(2)의 ④松浦論文, 1723~1726쪽, 注(2)의 ⑤管論文, 38쪽을 참조.
- 6) 許儀後에 대해서는 注(2)의 ⑤管論文, 34~38쪽·46~50쪽, 注(2)의 ⑧増田論文, 17~22쪽, 長節子, 《中世國境海域の倭と朝鮮》, 「朝鮮の役における明福建軍門の島津氏工作—《錦溪日記》より—」(吉川弘文館, 2002年)을 참조.
- 7) 蘇八에 대해서는 注(2)의 ②石原書, 38쪽에 언급이 있는데, 그 외에도 米谷均, 「後期倭寇から朝鮮侵略へ」(池享編,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吉川弘文館, 2003年), 146~147쪽을 참조바람.
- 8) 郭國安에 대해서는 注(2)의 ⑧増田論文을 참조.

: (관백은) 금년[*만력 19년 <1591>] 3월에 대명에 入寇하려고 하여 북경으로부터 침입하는 자는 조선에 先導시키고, 복건·광둥·절강·남경으로부터 침입하는 자는 중국인에게 선도 시키려고 했습니다.

: (만력 18년 <1590>) 12월 25일, 관백은 다시 使僧을 琉球에 보내 (다음과 같은 취지를) 자세히 전해 왔습니다. 「倭王(관백)은 (내년) 8월에 출병해 대명을 탈취할 생각이다. (征明軍 가운데 하나는) 남경으로부터, 하나는 절강으로부터, 하나는 복건으로부터 침입하여 (명군을 격퇴해) 白旗를 세우게 한다. 금은을 쌓아올려 (명인에게) 모반을 일으키게 하고 (在日) 唐人에게 선도시킨다. (남경·절강·복건) 3성을 항복시켜 나아가서는 북경에까지 쳐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료 2】《보③》蘇八의 供述

: 칸파쿠도노(關白殿)는…새롭게 병선을 만들어 倭로 唐人을 모아 先導役으로 하고, 중국에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들 唐人은 (일본인의) 아내를 두어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征明전쟁의 예정 루트로서 한반도 경유 이외에 중국 강남 지방에 직접 침공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남 침공군을 3개의 부대로 나누어 남경·절강·복건지방에 각각 침입하여 同地를 점령한 후에 북경에 공격해 올라간다고 전하고 있다. 마치 嘉靖大倭寇 시대에 자주 볼 수 있었던 동시 다발적인 掠寇戰術을 연상시키는 침공 구상이다. 또 북방 침입군은 조선에 선도시킴과 동시에 남방 침입군은 在日 明人(唐人)을 先導役으로 하여 뇌물 전술로서 현지 明人の 모반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부분도 흥미롭다. 더욱이 《보⑥》許儀後 등의 陳報에 의하면, 秀吉는 王直의 잔당들을 소환하여 강남 방면에 대한 침공의 難易를 물었다고 한다. 다만 이상과 같은 남북 동시 침공 구상과 관련하여 일본 측 사료로부터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은 꽤 의심스럽다. 그러나 통보자들이 秀吉의 征明전쟁 계획을 후기 왜구의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하여 풍설을 명에 제공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사료 1】에도 진술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征明 계획 구상은 이미 조선이 일본에 복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침략전쟁 이전의 일·조관계에 대해서 「近報倭警」의 통보자들은 이하와 같은 정보를 명에 전하고 있다.

【사료 3】《보①》鄭洞의 陳報

: 관백은 琉球가 佛國인 것을 들어서 알고 있으며, 감히 출병하지 않았습디다만, 조선에 대해서는 결국 군사를 내어 승리했습니다.

【사료 4】《보②》陳申의 陳報

: 만력 18년 〈1590〉 4월, (관백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이기고, 300명의 來降者를 획득했습니다.

【사료 5】《보③》蘇八의 供述

: 만력 18년 〈1590〉 2월, (칸파쿠도노는) 두목들을 파견해 배를 인솔시키고 조선과의 경계인 對馬島라고 하는 海島에 정박하여 使僧을 조선에 보내 칸파쿠도노의 利害를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조선은 놀라 두려워서 즉각 大頭目の 息子 10명을 투항시켰습니다. 이에 칸파쿠도노는 壱岐라고 하는 海島에 草房을 세워 상기의 투항자 10명을 안치해 인질로 삼았습니다.

【사료 6】《보⑥》許儀後・郭國安의 連名 陳報(「陳日本入寇之由」)

: (만력 18년 〈1590〉) 5월, 고려국이 공물을 바쳐 입경 했을 때도 (관백은) 琉球에 지시한 취지 [*征明嚮導]를 (고려의 사자에게) 내리고 황금 400량을 하사했습니다. 고려가 일본에 입공해 온 것은 작년 5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만력 18년 〈1590〉) 7월, 광동의 蠓境澳[*마카오]로부터 佛狼機가 (일본에 來貢하였고) 우리 大明國의 天圖 1폭·지도 1폭·犬 1대, 馬 1대·단자·향목 등과 함께 은 5만 냥 정도를 진상했습니다. (저) 許儀後 등이 (京都로부터) 薩摩에 하향 했을 때, 도중에 이 일행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백으로부터) 어떤 일을 분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즉 【사료 3・4】에서는 1590년에 秀吉가 조선에 출병해 300명의 투항자를 얻었다고 했으며, 【사료 5】에서는 조선으로부터 大頭目(국왕)의 息子 10명이 인질로서 보내졌다고 하였고, 【사료 6】에서는 이 해에 처음으로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조공 사절이 파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은 1590년에 조선통신사(황윤길·김성일·허성)의 일본파견이 와전된 오인 정보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후술). 또한 【사료 6】의 글 중에서 언급된 琉球사절이라는 것은 1589년에 일본에 방문한 天龍寺 桃菴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카오로부터 파견된 “불랑기”란 인도 부왕 사절의 명목으로 1590년에 來日한 알렉산드로 바리나니 일행을 가리킨다. 모두 일본 국내에서는 秀吉에 대한 조공 사절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더욱이 許儀後 등은 아래와 같은 이상야릇한 정보를 알리고 있다.

【사료 7】《보⑥》許儀後・郭國安의 連名 陳報(「陳日本入寇之由」)

: 금년[*만력 19년 〈1591〉]가을 7월 1일, 고려국은 관인을 (일본에) 보내 입공하였고, (그 관리를) 인질로서 (내민 뒤에) 관백에게 (征明戰爭의) 조기 결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今秋七月初一日, 高麗國遣官入貢爲質, 催關白速行”이라고 하는 기술은 완전히 사실과 반대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마 선조 24년 <1591> 6월에 宗義智가 부산에 도항하여 “假途入明” 요청을 조선 측에 행했던 것이 風聞으로서 薩摩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곡해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벌써 일본에 복속되어 征明嚮導에 협력하려고 하고 있다.”고 놀라울 정도로 왜곡된 인식이 일본 국내에서는 공고한 “상식”으로서 정착되 버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조선의 征明嚮導說을 완전히 믿어 버리고 있었던 許儀後는 “조선=조국대명의 적”이라고 하는 전제로서 論을 세우고 있었으며, 조선에 대한 적의를 노출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명의 관헌에 제안하기에 이르고 있다.

【사료 8】《보⑥》許儀後·郭國安의 連名 陳報(「陳禦寇之策」)

혹은 200만, 혹은 300만명(의 군세)을 고려의 땅에 진군 주둔시켜, 고려의 중심된 관리를 모두 죽여 고려의 백성으로 (명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소멸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의) 대군을 고려의 사방에 배치하여 고려인으로서 우리 편[*明]에 동조하는 사람에게 명해 고려의 관리로 위장시켜 (왜인을) 끌어 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을 포위하고 대포를 신호로서 (유인한 왜인을) 공격해 죽입니다. 산동과 요동으로부터는 각각 순군 50만을 출동해 봉화가 오르는 것을 신호로 왜인들의 배후를 찢어, 수륙 양쪽에서 공격을 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倭는 편히 보낼 수 못하고, 또 고려는 (倭) 호응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군이 조선을 공격하고 점거하기 전에 명군이 선수를 쳐서 조선을 점거해라. 고려인은 귀순자 이외 모두 살해해라. 귀순한 고려인을 미끼로 해서 왜인을 끌어들이, 단번에 섬멸하라.”는 무서운 제안이다. 조선 측의 입장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제안이지만, 이러한 陳報가 조선 침략 직전에 남방 루트로 북경에 전달되었다는 것은 명의 대조선 인식에 지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왜, “조선은 일본에 복속되었다.”는 인식이 일본 국내에 유포된 것일까. 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豊臣秀吉의 조선에 대한 主觀과 1590년에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 속에 그 원인이 있었다.

2. 조선통신사의 來日을 둘러싼 일본측의 해석

원래 조선에 대한 도요토미 秀吉의 인식은 “지금까지 (고려의 왕은) 對馬島の 屋形

[*宗氏]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일본으로의 渡海가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이 있었다.”(《九州御動座記》)라고 하는 바와 같이 “조선=對馬중속”관에 근거하고 있어 “琉球=薩摩중속”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⁹⁾ 무엇보다도 조선 측의 입장에서 “對馬=조선 藩臣”이야말로 주류의 견해였으며, 만일 위와 같은 秀吉의 견해를 알았다면 너무 황당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 국내에서 秀吉의 견해는 결코 기이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것은 일본에서 길게 생활한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술로부터도 확인할 수가 있다.

【사료 9】 프로이스 《일본사》 제35장(제3부 46장)

平戶항의 북방에 있으며, 우리들(포르투갈인)의 (리수로) 30 레그아 지점에 對馬라고 칭하는 섬이 있다. 이 섬에는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는 이 섬(을 경유해서)만 조선과 무역을 하고 있다. 매년, 이 對馬島로부터 300명 정도의 상인이 조선의 주요한 마을에 나가 상거래를 영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인은 일본인이 (그러한 마을)로 통하는 길에서 벗어난 곳에 유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 측으로부터는 매년마다 일종의 공물로서 米 1만 俵를 對馬의 國主에게 바치고 있었다.

위에서 보이는 조선의 “공물”이란 조선 측이 매년 對馬島主에게 하사하고 있던 歲賜米豆 100석이 와전된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87년에 宗氏를 복속시켰던 秀吉는 對馬의 부하였다고 믿는 조선 국왕에 대해 신속하게 일본에 입조시키도록 對馬 측에 조선과의 교섭을 엄명했다. 이 “朝鮮國王 入朝要求”를 對馬가 “朝鮮通信使 派遣要求”로 살짝 바꾸어 교섭에 임하고 있었다는 전말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상세한 언급은 생략한다.¹⁰⁾ 다만, ①1589년에 宗義智 스스로가 가짜 일본국왕사의 부사가 되어 秀吉 명의를 위조 국서를 휴대하고 조선에 도항해 통신사 파견을 집요하게 요청했다는 것, ②조선 측은 통신사 파견의 조건으로서 損竹島事件(1587년)의 嚮導者인 沙火同의 인도를 제시했던 것, ③이 요구에 대해 통신사 방문의 조기 실현을 꾀하는 小西行長の 공작에 의해 五島 거주의 沙火同이 체포되어 조선으로의 縛送이 실현되었다는 것, ④ 그 결과, 사절 파견의 명분을 얻은 조선 측은 1590년에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했다는 것, 등의 4점만을 언급해두는 것에 머무르겠다.

그런데, 통신사의 일본 방문은 1443년의 사행 이후, 실로 약 150년만의 일이었다.

9) 注(2)의 北島書, 16쪽.

10) 注(2)의 ③中村論文 및 米谷均, 「豊臣政権における海賊の引き渡しと日朝關係」(《日本歴史》650, 2002年)을 참조 바람.

그들의 일본 방문을 들은 일본 측 인사는 어떠한 견해를 나타낸 것일까.

【사료 10】 山科言經, 《言經卿記》天正18年〈1590〉7月19日條

고려인[관백이다]이 전번에 堺에 닿아 오늘 京都에 올라왔다. 배를 타고 상경했다. (일행 중에는) 관현(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구경을 위해) 모였다. (그들은) 전하[*秀吉]에게 御禮를 하기 위해 (왔다)라고 한다. 우선 (그들은 궁중에) 참내한다고 한다.

【사료 11】 勸修寺晴豊, 《晴豊記》天正18年〈1590〉7月21日條

오늘, 사시(巳時)에 고려의 사람들이 관현(을 연주하면서) 상경했다. 각각이 동행 했다. 中山殿과 原源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인의) 숙소에서 (그들을) 구경했다. 大酒(를 마시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곧바로 大德寺에서 고려의 사람들은 숙박하고 있었다. (나는) 구경하기 위해 (거기에) 갔다. (使者는) 고려의 關白이다.

【사료 12】 英俊, 《多聞院日記》天正18年〈1590〉7月26日條

小田原가 落城했다. …한편 일본국 60여주는 각지의 섬들에 이르기까지 (關白殿의) 지배에 들어갔다. 신묘한 일이다. 신묘한 일이다. 고려·남만으로부터도 御禮를 위한 사자가 (일본에) 와 京·堺에 머물고 있다. 그것 참 희대의 일이다. 희대의 일이다.

상기 사료 가운데 【사료 10】의 山科言經과 【사료 11】의 勸修寺晴豊은 京都 거주의 公家, 【사료 12】의 英俊은 奈良 거주의 승려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통신사의 행렬을 구경한 言經과 晴豊이 모두 “고려의 관백”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고려의 관백”이란 조선 국왕의 부하인 최고위의 관료, 즉 영의정 클래스의 거물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물론, 실제로 온 것은 정사의 황윤길이든, 부사의 김성일이든 겨우 상급 관료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며, 상기의 견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다만 이 오해는 단순한 流言風說의 산물이 아니라, 山室恭子が 지적한 바와 같이 豊臣 정권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 조작의 결과일 것이다.¹¹⁾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으로부터의 사절은 秀吉에 대한 “御禮”를 위해 파견되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사료 10·12】). 이 “御禮”라는 말은 이 시대에 단순한 사례나 감사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고위자에게의 臣從 儀禮를 가리키고 있었다.¹²⁾ 환연한다면, 이 사절은 조선의 일본에 대한 복속 표명의 사절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11) 山室恭子, 《黃金太閤》(中公新書, 1992年), 89~94쪽.

12) 이른바 “御禮의 論理에 관해서는 高木昭作, 《將軍權力と將軍一秀吉・家康の神國觀一》, 「秀吉・家康の對外文書にみられる「御禮」の論理」(青木書店, 2003年)을 참조 바람.

게다가 【사료 12】의 英俊과 같이 小田原城을 낙성시켜 秀吉가 천하 통일을 성취한 것과 고려나 남만의 “御禮의 使者”(조선통신사와 인도 부왕 사절 바리나니)가 일본을 방문한 것 사이에 신묘하고 불가사의 한 인과 관계를 느끼게 되어 조금은 흥분한 기색으로 감탄의 변을 발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조선 측에는 秀吉에게 복속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다고 하는 의식은 추후도 없었다. 어디까지나 이 사절은 일본 측이 “국서”를 먼저 보내 해적이었던 沙火同을 縛送한 성의에 응하기 위해 파견한 회답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日本新王” 앞으로 보낸 선조의 답장은 對馬島에 의해 빼돌려져 마치 조선 국왕이 秀吉의 일본 통일을 경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서를 보낸 것과 같은 문맥으로 바뀌어 써지고 있었다.¹³⁾ 이 개찬 국서에 접한 秀吉는 그 답장 속에서 “귀국이 앞장서서 (일본에) 入朝한 것은, ‘深慮가 있으면 近憂도 없다’고 하는 (마음가짐에) 의한 것일 것이다.”고 하여 ‘애정으로 가득한’ 위로의 念을 나타냄과 동시에 “내가 大明에 출병할 때, (귀국 이) 사졸을 이끌고 (나의) 군영에 와준다면, 드디어 이웃나라끼리의 맹이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고, 征明 원군을 엄숙하게 하명했다.¹⁴⁾ 당연히 통신사는 秀吉 국서의 내용에 강하게 항의하고 개서를 요구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어찌할 바 없이 귀도에 오르게 된다. 또한 상기의 秀吉 국서의 문맥은 국내에 공개된 것 같아 보이는데,¹⁵⁾ “조선은 일본에 복속하여 關白으로부터 征明향도를 명받았다.”고 하는 정보가 조선 측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본 국내에 유포되어 돌아다니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관백”, “고려 국왕 御禮의 사자”라고 하는 정보가 平戸에 있는 蘇八의 귀에 이를 무렵에는 “인질로서 보내진 大頭目の 息子 10명”이 되었고, 琉球의 陳申에게 전해질 무렵에는 “패전의 來降者 300人”으로 바뀌어 마치 전언 게임과 같은 정보의 왜곡이 증폭되어 갔던 것이다.

3. 명·조선 양국 관계에게 미친 영향과 충격

만약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怪情報”가 일본 거주자의 입 끝에 머물고 있었다

13) 田代和生・米谷均, 「宗家旧藏『図書』と木印」(《朝鮮學報》156, 1995年), 83~88쪽. 伊藤幸司, 「現存史料からみた日朝外交文書・書契」(《九州史學》132, 2002年).

14) 《續善隣國宝記》第37号文書(田中健夫編, 《善隣國宝記新訂續善隣國宝記》, 集英社, 1995年). 단지, 그 번역문과 해석에 대해서는 注(2)의 ⑥北島書, 7~8쪽의 것을 채용했다.

15) 注(11)의 山室書, 94쪽. 典據는 近衛信尹의 日記 《三藐院記》.

면, 아이들의 장난과 같은 유언비어로서 조선 측은 웃어넘겨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보는 조국을 염려해 마지않는 華人들에 의해 머지않아 明에 통보되었다. 더욱이 불행한 것은 그러한 정보에 접한 명정부가 그것을 황당무계한 것으로 却下하지 않아, 북경의 要路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 측의 입장에서 “征明嚮導”라는 웃음을 금치 못할 괴정부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제멋대로 명에 전해지고, 또 조·명 양국의 국제문제로까지 발전했다고 하는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사태가 이후 전개된다.

진술한 「近報倭警」 가운데, 《보①》鄭澗의 陳報와 《보②》陳申의 陳報는 만력 19년 <1591> 3월 26일에 琉球를 출범한 進貢使가 福州에 입항한 후, 동년 4월에 同地에서 작성되었다. 이 가운데 《보①》은 福建巡撫 趙參魯의 題奏(「爲貢夷附報倭警, 預陳防備機宜等事」)에 부분 인용되는 형태로 북경에 전달되었고, 《보②》도 浙江巡撫 常居敬의 題奏(「爲馳報倭夷緊急軍情, 乞勅督部衙門, 嚴加偵探, 早爲禦防, 以杜後患事」) 속에 부분 인용되어 북경에 전해졌다.¹⁶⁾ 《보①》에서 인용된 부분은 바로 “관백이 일본 66주를 병탄하고 조선에 출병해 승리하였고, 琉球에도 복속을 강요했다. 또 각 주에 진함 축조를 하명하여 명년 9월에 征明 결행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다. 또《보②》의 인용 부분은 상기 정보 외에 秀吉가 조선에서 승리해 300명의 來降者를 얻었다는 것, 征明戰 때 조선을 북경 침공의 嚮導役으로, 재일 중국인을 강남 침공의 嚮導役으로 삼을 계획이 있다는 것 등등, 조선 측에게는 가장 불쾌한 오인 정보였다. 절강순무는 상기의 내용을 받아들여 題奏 중에서 이와 같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료 13】浙江巡撫御史題(柳成龍, 《西厓集》卷3, 「陳倭情奏文」所收)

조선과 일본은 함께 해중에 위치한다고는 말해도 남북으로 서로 떨어져있어 매우 멀니다. 만약 일본이 조선에 이겼다고 하면, 선박으로 항해하는 것은 천리 이상(의 거리)이 될 것이며, 有事를 고하는 긴급의 속보가 전혀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조선은 매년(우리 명의) 정삭을 받들어 대대로(우리 명의) 국은을 받고 있으며, 평소부터(자국을) 예의의 나라로 칭하고 있어 각각(의 신민)이(우리 명에) 忠順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찌서 일본이 이겨서 어쩔 수 없다 하여 도적에 복종하여 갑자기(征明의) 嚮導를 맡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일본이 琉球를 위협해 항복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패배시켰다.”고 거짓을 말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琉球를 공갈했겠습니까. 그리고 琉球는 중국에 구원을 요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말을 경솔하게

16) 柳成龍, 《西厓集》卷3, 「陳倭情奏文」(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52, 民族文化推進會, 57~60쪽), 所引의 「福建巡撫題」, 「浙江巡撫御史題」.

민어 복건에 통보했겠습니까. 아직도 (진상은) 불명합니다. 다만, 해외의 풍설은 근거 없이 억단하기 어렵다고는 말해도 군정에 관련되는 일이므로, (진상 구명을 위해서) 반드시 원형 정찰해야 합니다.

즉 절강순무는 조선이 일본에 저 복종했다고 하는 정보에 의문을 나타내 “琉球는 일본으로부터의 가짜 정보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억측하면서도 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찰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절강순무와 복건순무의 題奏는 만력 19년 <1591> 7월 20일까지는 북경에 이르고 있었던 모양으로 이 날 內閣大學士 許國 등은 “어제 얻은 바의 절강순무와 복건순무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 倭奴가 琉球를 招誘하여 (우리나라에) 入犯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고 題奏해 북방의 몽골인과 남방의 미얀마 사람에 의한 변경 침범 사건과 관련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 戶部都給事中 王德完도 8월 1일에 복건순무가 알린 琉球 朝貢使에 의한 일본 경보에 대해 언급한 것에 관해서도 題奏를 내고 있다.¹⁷⁾ 그리고 8월 8일이 되자 요동순무는 아래와 같은 병부의咨를 수령했다.

【사료 14】兵部咨(柳成龍, 《西厓集》卷3, 「陳倭情奏文」所收)

…즉시 그에 적합한 통사를 파견해 밤낮을 계속하여 조선국으로 보내라. 그리고 일본 관백의 (명) 入寇와 조선에 대한 戰勝의 유무, (및) 조선 국왕이 과연 전함 축조와 (征明) 嚮導를 들어주었는지 아닌지를 정찰해서 일일이 상세하게 조사하고, 확실한 정보를 획득해라. 혹은 즉시 그의 나라의 배신에 통지하여 (조선 국왕에) 계문시켜 진실에 근거한 회답의 奏上을 (조선이 보내도록) 하라.

조선이 일본에 복속하여 征明전쟁에 조력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명으로부터 조선에 통사를 파견하는 것이 하명되었다. 이러한 병부의 지령은 요동순무로부터 遼東都司에 전송되어 8월 23일, 요동도사의咨(「爲哨探倭情事」)가 조선 국왕에게 도착되었다.¹⁸⁾

그런데, 이보다 먼저 조선 국내에서는 만력 19년 <1591> 정월 28일에 귀국한 조선 통신사가 가져온 놀랄만한 일본 정보를 명에 전달해야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통신사가 가져온 정보라는 것은 秀吉의 征明계획과

17) 이상, 《明神宗實錄》卷238, 万曆19年7月癸未(20日)條. 卷239, 8月癸巳(1日)條. 또 8월 2일에는 “琉球貢使가 倭警를 보고해왔기 때문에 海防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福建巡撫 趙參魯의 上奏가 北京에 이르렀고, 兵部의 覆題에 의해 万曆帝의 윤허를 얻고 있다. 《同》卷239, 8月甲午(2日)條.

18) 「陳倭情奏文」(《西厓集》卷3, 所引의 「遼東都司咨」.

조선에 대한 “假途入明” 요청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 “假途入明(길을 조선에 빌려 입명한다)”이라는 것은 秀吉의 “征明嚮導” 요청을 對馬島가 미봉해 완화시킨 표현이지만, 그 진심이 조선에 대한 助征 강요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5월 4일에 이 긴급 정보를 명에 진주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격렬한 論戰이 조정 내부에서 벌어졌다.¹⁹⁾ 호조판서 윤두수는 “곧바로 천조[*명]에 진주하고, 통신사파견의 경위도 알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고, 병조판서 황정욱은 “우리나라는 천조에 200년간 忠勤을 다해 왔습니다. 어찌서 진주하지 않고 있겠습니까?”라고 말해 모두 즉시 진주에 찬의를 나타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제학 金晳은 통신사파견의 사실이 명에 전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여 진주에 난색을 나타냈으며, 좌의정 유성룡도 또, “만약 이 진주가 일본인의 귀에 들어갔을 경우,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해 강하게 반대했다.²⁰⁾ 진주 반대론을 정리해보면, “통신사 파견을 명이 알면, 조선이 일본과 내통 했다고 의심할 것이다.” “진주를 일본이 알면, 그들은 국경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2점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가운데, 좌승지 유근은 아래와 같은 묘안을 선조에 진언했다.

【사료 15】 朴東亮, 《寄齋史草》上, 万曆19年 5月4日條

유근은 말했다. “...秀吉가 굉장한 바보라고 해도 반드시 천조에 入犯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근거 없는 언설을 (진주하면), 하나는 천조를 놀라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나라 (일본)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한) 일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직접 (명)에 진주한 후에 만일 천조로부터 그 곡절을 심문받으면, 반드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진주하고 싶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도망쳐 돌아온 피로인으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한다면, 커다란 방해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안에 선조는 찬의를 나타내었고, 다음 5일, “진실 된 情報源을 숨기고 조선인 표류민 金大璣로부터 얻은 정보라고 칭해 자연스럽게 상주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왜적이 상국[*명]을 범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록한 예부 앞으로의 자문을 성절사(김응남·황치경)에게 맡겨 북경에 파견하게 되었다.²¹⁾ 또한 김응남의 한성 출발 일시는 불명하지만, 8월 17일 만력제의 성절(탄생일) 하례까지 북경에 도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한성을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²²⁾

19) 이 논의에 대해서는 注(2)의 ③中村論文, 105~113쪽에 상세하다.

20) 이상, 朴東亮, 《寄齋史草》上卷, 万曆19年 5月 4日條(《大東野乘》10), 221~227쪽.

21) 李植, 《野史初本》卷13, 宣祖24年 5月條(《朝鮮學報》173, 160쪽). 《朝鮮宣祖實錄》卷25, 宣祖24年 10月丙辰(24日)條.

불행하게도 김응남 일행이 명에 입국했을 무렵에 琉球로부터 출발한 《보①②》의 일본 정보가 북경에 이르렀고, 征明嚮導의 풍설이 요동 방면으로까지 유포되고 있었다. 김응남은 산해관의 주민으로부터 “너희 나라는 왜와 함께 모반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여기에 온 것인가?”라고, 매우 많은 욕을 들었다고 한다.²³⁾ 거기서 사절단의 일행이었던 역관 홍순언은 內閣大學士 許國의 舍人인 兪深 앞으로 밀서를 보내 조선 국내의 사정을 알렸는데, 유심은 은밀하게 통주까지 마중 나가 홍순언을 면회하고 북경의 내부 정보를 이하와 같이 말했다.

【사료 16】申靈, 《再造藩邦志》卷1

근일, 복건 등의 지역에서부터 너희 나라가 왜를 이끌어 (우리나라를) 침범한다는 상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정 내부에서 직언하여 서스름 없이 논의가 되고 있다. 각로님 [*허국]은 혼자 이것을 말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조선의 성절사가 지금 바로 도착하려 하고 있다. 반드시 이번 통보의 문서를 지참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문서가) 없으면, 과연 의심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科道官은 너희 나라의 사신이 북경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사신을) 체포·심문해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취지를 (폐하에게) 상주하려고 했지만, 각로님이 “사태가 관련하지 않는데, 오자마자 사신을 糾問하는 것은 柔遠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논의가 조금 진정되었다. (그리고) 너희 나라의 이번 통보에 대한 유무를 기다려 대처하게 되었다. 지금 너희 서장을 얻어 각로님도 매우 기뻐하고 있어 먼저 알리기 위해 나를 여기에 파견한 것이다.

상기 내정을 안 김응남 일행이 얼마나 경악하고 전율을 느꼈는가는 상상하고도 남는다. 김응남은 북경에 도착하자, 곧 바로 허국에게 초대되어 사정 청문을 받았다. 또 김응남은 禮部左侍郎 韓世能에게도 문서를 제출하여 사정 설명으로 분주하였고, 호의적인 대답을 얻고 있다. 또한 허국은 1561년에, 한세능은 1572년에 조선에 파견된 경험에 있어, 조선 사정에 통하고 있었다.²⁴⁾ 그들 조선 사정통에 대한 설득 공작이 효

22) 예를 들면, 萬曆 2年(1574) 聖節使의 경우, 5월 11일에 한성을 출발해 6월 14일에 압록강을 건넜고, 7월 18일에 山海關에 이르러, 8월 4일에 북경의 玉河館에 들어갔으며, 8월 17일에 聖節禮에 참가하였다. 9월 6일에 玉河館을 출거해 10월 10일에 鴨綠江을 건너 의주에 이르렀고, 11월 3일에 한성으로 귀환하고 있다. 聖節使의 사행 과정은 거의 이것과 마찬가지로 엮을 것이다. 許筠, 《荷谷先生朝天記》(《燕行使選集》上, 成均館大學, 1960年).

23) 申靈, 《再造藩邦志》卷1(《大東野乘》7, 363쪽).

24) 許國은 隆慶 元年(1567)에 隆慶帝 卽位の 詔를 전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되었었고, 침범한 인물로서 후세까지 기억되고 있다. 使行錄, 《朝鮮日記》3卷 남기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夫馬進, 「使琉球錄解題および研究」(夫馬進編, 《使琉球錄及び研究》, 京都大學文

과를 보았는지 8월 11일에는 “조선이 알린 倭奴의 소식은 琉球가 알린 것과 거의 같다. 잘 포상 하여 격려 할 것”이라는 예부의 題奏가 만력제에게 제출되고 있으며,²⁵⁾ 조선에 걸린 征明嚮導의 혐의는 일단 여기에서 해소되었다. 김응남 등의 일행은 일전 후대를 받아 만력제로부터 “조선은 暹羅·琉球 등의 나라와 연결하여 군사를 합쳐 (일본을) 기습 공격하라”는 勅諭를 받은 후 11월 2일 한성으로 귀환하였다.²⁶⁾

그런데 征明嚮導의 진위를 묻는 요동도사의 참가 조선 국왕에게 도착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8월 23일의 일이었다. 이 자문은 김응남의 북경 파견과 엇갈린 형태로 도착하였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조선 조정은 곧 바로 요동도사에 대해서 선조명의를 회자를 송부함²⁷⁾과 동시에 무고 변명을 使命으로 하는 陳奏使(한응인·신경진·오억령)를 북경으로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²⁸⁾ 10월 24일에 한성을 출발한 진주사가 휴대한 선조명의를 상주문(「陳倭情奏文」)은 유성룡과 崔崐에 의해 작성된 장대한 변명서이지만, 긴박한 일본 정세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사료 17】崔崐, 《簡易集》卷1, 「辛卯奏」²⁹⁾

臣[*선조]이 조사해보았는데, (이하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올해[*만력 19년 <1591>] 3월, 일본 對馬州 太守 宗義調가 쇄환한 피로인 김대기의 진술에 의하면, (표착지의) 畠山

學部 東洋史研究室, 1998年). 또한, 許國의 舍人인 俞深은 상기의 使行에 동행하여 朝鮮으로 향하여 洪純彦과 친교를 맺었다고 한다. 許國과 俞深이 金應南 일행에게 각별한 편의를 모색한 배경에는 수년간의 친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再造藩邦志》卷1(《大東野乘》7, 363쪽).

25) 《明神宗實錄》卷239, 万曆19年 8月 癸卯(11日)條.

26) 《朝鮮宣祖實錄》卷25, 宣祖24年 11月 甲子(2日)條. 《再造藩邦志》卷1(《大東野乘》7, 368쪽). 管寧씨는 注(2)의 ⑤論文 44쪽에서 金應南이 万曆20年 3월까지 북경에 체재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확히 틀린 것이다.

27) 「陳倭情奏文」(《西厓集》卷3)에 선조의 上奏 부분에 “今該前因, 已經[*徑か?]略具詞, 節回咨都司, 計已轉聞朝廷外(現在, 上記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문장을 작성해 遼東都司에게 回答의 자문을 보냈습니다. 생각건대, (이 회답 자문의 내용은) 이미 조정에서 轉奏되어져 있을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28) 《朝鮮宣祖實錄》卷25, 宣祖24年 10月 丙辰(24日)條.

29) 崔崐, 《簡易集》卷1, 「辛卯奏」(《影印標点 韓國文集叢刊》49, 175~181쪽). 색인 아래에 “十月二十四日, 奉 敎製”이라는 注記가 있다. 이 선조 上奏文의 초고는 柳成龍, 《西厓集》卷3, 「陳倭情奏文」과 같은 내용이지만, 전자는 후자에 없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어 자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 상주문은 柳成龍이 우선 초고를 작성해 이어서 崔崐이 가필하여 완성한 것일 것이다. 단지, 《簡易集》所收의 텍스트는 冒頭に 인용한 遼東都司의 자문 부분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上奏文의 전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西厓集》의 텍스트와 같이 참조할 필요가 있다.

殿의 州라고 하는 땅에서 (일본) 국왕이 전함을 많이 만들어 금년[*만력 19년 <1591>] 大明에 입국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어 올해[*만력 19년 <1591>] 5월, 왜인의 僧俗 10명이 와서 말하기를 “일본 관백 平秀吉은 군사를 이용해 (일본의) 諸島 66주를 병탄하고 琉球·남만 제국은 모두 복종했다. (일찍이 일본은) 嘉靖 연간에 대명에 遣使 入朝했음에도 대명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것을 대대의 원한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명년[*만력 20년 <1592>] 3월에 대명에 入犯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병선이 통과할 때, 귀국(조선)의 국경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만약 대명의 許和를 얻을 수 있다면 사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또 올해[*만력 19년 <1591>] 6월, 對馬島主 宗義調에 의해 파견된 아들의 義智가 포구[*부산]에 도래해 “긴급 경보가 있다”라고 칭하고 (이하와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관백은 병선을 많이 준비해 분명히 대명에 入犯하려 하고 있다. 귀국도 소요를 입게 될 것이다. 만약 귀국이 앞장서서 대명에 통보하여 강화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언뜻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 측은 秀吉의 征明계획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情報源을 만력 19년 <1591> 3월에 일본으로부터 송환된 김대기의 공술과 동년 5월에 來朝한 왜인들의 발언, 다음 해 6월에 부산에 도래한 宗義智의 경고 등 3개로 한정하고 있어 조선 통신사의 존재를 완전하게 은폐하고 있다. 특히 동년 5월 내조한 “왜인 승속 10명”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아 통신사와 동행하여 조선에 건너간 가짜 일본국왕사(玄蘇·柳川調信 등)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신사 호행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사절인 것과 같이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다. 조선 측은 김응남의 파견 때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의 일본 파견에 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다음, 왜정 통보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부터도 이해할 수 있다. 이하, 해당 상주문에서 《보①②》의 琉球 정보는 일본의 간악한 정보 조작으로 화를 입은 허위 정보인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얼마나 오랫동안 조선이 왜구의 피해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조선이 명에 忠順을 다해 왔는가라고 하는 일을 장황하게 상세히 써놓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언을 가지고 문장을 맺고 있다.

【사료 18】 崔崧, 《簡易集》卷1, 「辛卯奏」

臣[*선조]은 어떤 이유로써 불행하게도 이러한 (汚名)을 閩越[*福建]의 사이로부터 얻게 되어, 더욱이 (그러한 정보가) 조정에 상문되어 버렸는지요?. 곰곰히 생각건대 天地日月은 결코 이것을 가지고 신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도 또한 감히 많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의 사대의 성심이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여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국내의 연안

守將에 대해서 엄중 경계를 하명했으므로, 만약 적선과 조우하면, (그 배가) 국경 침범이든 국경 통과를 구분하지 않고 신속하게 격멸 하겠습니다. 이 외에 굳이 조정에 바라는 것은, 특히 (명국내의) 海道備倭 등의 官에 勅을 내어 유비무환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이상, 삼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에 한성을 출발한 진주사가 언제 명에 입국했는가는 불명하지만, 통상의 노정을 더듬어 본다면, 다음 해의 만력 20년 <1592> 정월 하순까지는 북경에 도착했을 것이다.³⁰⁾ 이후, 한응인은 조선에 걸린 원죄를 풀 수 있도록 변명 활동에 종사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를 둘러싸는 환경은 김응남 때와 비교해 훨씬 더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한 것도 전년의 만력 19년 <1591> 11월 4일에는 벌써 요동도사 앞으로 선조의 회답이 북경에 전달되고 있었으며,³¹⁾ 왜정 정보의 충절로 인해 만력제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월 18일에 명 측은 한응인 등 42명에 대해 연향 접대를 베풀었고, 다음 19일에는 “조선의 군신은 征明嚮導의 무고에 통분하고 있다. 왜정 정탐하여 보고한 국왕의 효충을 살피라”는 취지의 題奏가 병부에 의해 행해졌다. 또 3월 7일에는 한응인 등에 대한 賜宴이 개최되었고, 다음 8일에는 禮部의 題奏에 의해 만력제로부터 조선 국왕에게 격려의 칙서가 하사되었다.³²⁾ 이 사이에 진주사는 지극히 극진한 대우를 명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별로 출어하지 않는 만력제가 친히 일행을 접견해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다고 한다.³³⁾ 한응인 등은 이번 변명 활동으로 명으로부터의 혐의를 완전하게 풀어, 신뢰 회복의 달성을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북경에 체재하고 있던 바로 그 때, 그러한 활동에 물을 끼얹는 정보가 다시 북건에 상륙했다. 許儀後 등에 의한 陳報의 到來이다. 薩摩를 탈출한 朱均旺은 만력 20년 <1592> 2월 28일에 북건 大崖港에 도착해, 3월에 福建 巡海道の 조사를 받았을 때, 《보6⑥》을 제출했다. 이 陳報는 북건순무에 의해 신속하게 북경에 송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3월 초순에 북경을 떠난 진주사가 과연 이 존재를 파악했는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확증이 없다.³⁴⁾ 그러나 어쨌든, 조선의 征明嚮導를 이

30) 한성에서 북경까지의 사행 일정은 通常 2개월부터 3개월을 요한다. 注(22)를 참조.

31) 《明神宗實錄》卷242, 万曆19年 11月 丙寅(4日)條・癸酉(11日)條.

32) 이상, 《明神宗實錄》卷245, 万曆20年 2月 己酉(18日)條・庚戌(19日)條. 卷246, 3月 丁卯(7日)條・戊辰(8日)條.

33) 《野史初本》卷13, 宣祖24年 10月條(《朝鮮學報》173, 163쪽). 《再造藩邦志》卷1(《大東野乘》7, 404쪽).

34) 管寧씨는 万曆20年 2월 28일에 북건에 도착한 許儀後 등의 陳報가 快速驛傳으로 3~4일 안에 북경에 도착하였고, 韓應寅 등 陳奏使가 입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 보다 확대해 강조하고 있는 이 陳報가 한응인 등의 노력을 無로 할 정도로 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후에 벌어질 명 측의 대조선 감정의 추이를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의 불운은 더욱 겹쳤다. 진주사 일행은 사명 완수를 화려하게 보고하기 위해 한성을 목표로 급히 東行하지만, 그 도중인 만력 20년 <1592> 4월 13일에 일본군의 조선 침략이 결국 발발한다. 국토의 반이 전화에 휩싸인 가운데 한응인 등이 선조를 대면한 것은 5월 2일의 일이었다. 게다가 한성은 벌써 포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명을 실시한 것은 개성의 행궁에서 였다.³⁵⁾

맺음말을 대신해

조선 측의 입장에서 「征明嚮導」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풍설이 남방 루트를 거쳐 명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예상외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다만 陳奏可否의 논의가 행해졌을 때, 그들은 복건 경유에 의한 정보 누설의 가능성을 실은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복건 상인이 일본과 명 사이를 왕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명에 진주했던 것이 그들을 통해서 일본에 누설될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정보가 복건으로부터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상정할 수 있었어도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왕선조는 “복건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인이 왕래하고 있다고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서계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어찌서 그들이 들어서 알을 것이며, 이것을 (명의 조정에) 상주할 수가 있을까?”라고까지 단언하고 있었다.³⁶⁾ 그리고 통신사의 일본파견 사실이 없는 오해를 부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明에의 陳奏를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바로 그 복건 상인에 의한 진보에 앞을 놓쳐버렸던 것이다. 琉球로부터 출발된 <보①><보②>에 의한

(注(2)의 ⑤論文, 44쪽), 의심스럽다. 許儀後의 陳報를 携行했던 朱均旺은 3月 上旬 福建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福建巡撫에 의한 <報⑥>의 北京 送致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종료된 뒤에 행해졌고, <報⑥>의 북경 도착도 韓應寅 등이 귀국한 후였을 가능성이 높다. 管씨가 根據로 한 3월 8일의 禮部 題奏(<明神宗實錄>卷246, 3月 戊辰條)도 一讀한 바에 한정하면 <報⑥> 到着의 근거는 될 수 없다.

35) <朝鮮宣祖實錄>卷26, 宣祖25年 5月 辛酉(2日)條. <再造藩邦志>卷1(<大東野乘>7, 404쪽).

36) 朴東亮, <寄齋史草>上卷, 萬曆19年 5月 4日條(<大東野乘>10, 223~224쪽).

충격은 김응남이나 한응인의 노력으로 일시적인 완화에는 성공했지만, 薩摩로부터 온 《보⑥》의 再來襲에 의해 그러한 노력은 거의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해도 좋다. 그리고 명의 관리들의 심중에 뿌려진 「征明嚮導」에 대한 의혹은 일본군의 조선 침략이 현실화되자 그 속보가 만력 20년 <1592> 5월 10일에 북경에 전달³⁷⁾된 이후에도 오히려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았다. 그 당시 “조선은 일본과 결탁하고도 兵禍를 입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兵禍를 입었다는 것을 구실로 하여 실은 일본을 위해서 길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다.”는 등의 어처구니없을 정도의 뜬소문이 요동지방에서부터 북경에 걸쳐 유포되어 있었다. 알뜰게도 개전 당초 조선 측이 너무 연전연패했던 것이 이 의혹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던 것 같으며, 의심을 품었던 병부상서 석성은 진상 해명을 위해 요동진무사 림세록 등을 조선에 파견할 정도였다.³⁸⁾ 6월 18일, 요동순안어사 李時孳의 자문을 일람한 선조는 “이것은 생각건대 우리가 왜적과 同謀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러한 협박 문언을 쓰고 그 반응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후들후들 떨면서 말하고 있었다.³⁹⁾ 또한《보⑥》은 요즘 조선에 파견된 명의 관리들에 의해 조선에 입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측을 힐난 하는 재료로서 이용되었을 것이다.⁴⁰⁾ 6월 중순 이후, 명은 조선에 대규모 구원군을 보내게 되지만, 한 번 뿌려진 불신의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군장교의 뇌리에 싹을 키워나갔다. 즉 「日朝陰結」이라고 하는 조선 측에게는 악몽과 같은 트집이 명군이 일본군에 패배를 당했을 때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에 明人の 입에서 튀어나오게 된 것이다.⁴¹⁾

조선은 환중국해지역에 소용돌이치는 정보의 소용돌이에 발이 걸린 채 이유없는 戰禍를 입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감히 가혹한 평가를 내린다면, 조선 측이 취한 최초

37) 《明神宗實錄》卷248, 万曆20年 5月 己巳(10日)條.

38) 《朝鮮宣祖實錄》卷26, 宣祖25年 5月 戊子(29日)條.

39) 《朝鮮宣祖實錄》卷27, 宣祖25年 6月 丙午(18日)條.

40) 이 문제에 대해서 中村榮孝씨는 “開戰後, 얼마 지나지 않아 명으로부터 정식으로 許儀後의 諜報가 조선에 통달되어 정부로부터 각 방면에 전달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日鮮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69年, 167쪽). 이것을 입증하는 기술이 注(39)의 사료에 있다. 또, 《報⑥》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조선 각지의 인사들에게 전해진 것 같다. 鄭琢, 《藥圃龍蛇日記》, 壬辰 8月 17日條(李渭應譯注, 釜山大學校韓日文化研究所, 1962年, 85~108쪽), 吳希文, 《瑣尾錄》上卷, 「甲午日記雜錄」(韓國史料叢刊14, 1971年, 403~410쪽) 등.

41)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평양 전투의 패배 후에 祖承訓의 誣告(1592年)와 울산성 전투 후에 발생한 丁應泰 誣奏事件(1598年)이 있다. 注(2)의 ⑥北島書, 115~118쪽. 李啓煌,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丁應泰誣奏事件”と日・明將らの講和交渉」(臨川書店, 1997年).

의 실패는 침략 전야의 일본 국내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 채-특히 秀吉의 진심을 간파하지 못한 채-1590년에 통신사를 파견했던 것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일본에 서는 ①秀吉에게 온 사절은 국내의 사절이든 외국의 사절이든 일방적으로 복속 사절로 간주되어졌었고, ②복속을 “표명”한 이상 秀吉의 전쟁에 전면 협력을 강요받았으며, ③그것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秀吉에게 토벌당한다라고 하는 豊臣 정권의 무서운 삼단논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²⁾ 이러한 秀吉의 논리는 조선 측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해의 범위를 초월한 蠻夷의 망상 그 자체이며, “왜인은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들의 전통적 일본관을 더더욱 강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왜인은 측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방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思考를 정지하든가, “왜인은 측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그 진심을 잘 정탐해야 한다.”는 후선책을 채택하든가의 문제로 사태의 전개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조선 측의 제2의 실패는 전자의 사고 회로로서 “왜인이 명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건방진 일을 할 리가 없다. 때문에 침략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낙관론에 빠져 버렸던 것이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재난을 경험한 조선 측은 전쟁 종결후 대일 교섭에 관해 “나는 그것에 넋더리가 나서 후환을 삼가 조심한다.”(유성룡, 《懲毖錄》)⁴³⁾라고 하는 태도를 문자 그대로 취했다. 즉 德川 정권의 탄생 후, 다시 일본으로의 사절 파견 요청이 對馬島에 의해 집요하게 행해지게 되자 당연한 일이지만, 조선 정부는 이 요청에 대해서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옛날, 柳川調信은 통신사(파견)을 (우리나라에) 요청했지만, (파견한 결과) 이윽고 壬辰의 병화가 발생했다. 小西行長은 책봉사(파견)을 (명에) 청해 바랐지만, (파견한 결과) 오히려 丁酉의 병화를 초래했다.”(《선조실록》39년, <1606> 6월 계해조)라고 하는 소감이 그들의 진솔한 심경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일본 국내 정보-이번은 家康의 眞意의 소재-의 수집에 노력을 경주한다. 또 동시에 주로 對馬를 견제하기 위하여 명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과시하는 “借重之計”라는 정보 조작 전술을 조선 측은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⁴⁴⁾

42) 이것은 秀吉 정권이 표명한 「惣無事令」을 가르킨다. 「惣無事令」에 대해서는 藤木久志, 《豊臣平和令と戰國社會》(東京大學出版會, 1985年)을 참조.

43) 原典은 《詩經》周頌의 小毖篇에 있는 “予其懲而毖後患”. 柳成龍이 이것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저서에 命名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것이다. 이러한 것도 그가 1590년의 通信使 歸國後에 행해진 朝廷의 議論에서 “秀吉은 두려운 인물이 아니다.”고 하여 樂觀論에 찬동했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44) “借重之計”에 대해서는 関德基, 《前近代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早稻田大學出版部,

《補註1》 侯繼高에 대해서는, 川越泰博, 「《全浙兵制考》の撰者侯繼高とその一族-とくにその素性・履歴をめぐって-」(川越泰博編, 《明清史論集》, 國書刊行會, 2004年)에 상세히 논증되었다.

《후 기》 본고는, 심포지엄 「『조선왕조실록』 속의 한국과 일본」(2003년 10월 10일, 한국한림대학교)에서 필자의 보고 「『全浙兵制考』 『近報倭警』にみる日本情報」(《韓日關係史研究》제20집, 2004년4월에 게재)를 전면적으로 개정해 작성한 것이다.

1994年), 126쪽·193~194쪽을 참조 바람.

<표 1> 일본 정보의 전달과 朝・明관계

연월일	장소	기사
만력 19.1/28	부산	조선통신사(黃允吉・金誠一), 僞日本國王使와 함께 朝鮮에 귀환.
만력 19.3/	부산	김대기, 對馬송사에 의해 조선에 송환. 일본의 征明계획을 공술.
만력 19. 7/20	북주	陳申, 琉球 조공선(정례)에 탑승해 북주에 도착.
만력 19.4/	북주	《보②》陳申의 陳報가 작성됨.[*《보①》鄭廻 陳報의 年紀도 當月付]] 후에 《보①》개요를, 복건순무가 《보②》개요를 절강순무가 북경에 題奏.
만력 19.4/	장주	蘇八, 漳州 객선에 탑승해 루손으로부터 漳州 海澄현에 이른다.
만력 19.5/4	한성	조선 廷臣, 일본 정보 陳奏의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
만력 19.5/5	한성	조선 조정, 성절사(김응남)에게 맡겨 왜정 자문을 예부에 上모할 것을 결정.
만력 19.6/	부산	宗義智, 부산에 도착하여 秀吉의 征明전쟁이 근일 결행될 것을 경고.
만력 19.7/20	북경	내각대학사 허국, 7/19에 얻은 절강순무와 복건순무의 보에 대해 상주.
만력 19.8/8	요동	요동순무, 조선 정탐을 명하는 병부의 자를 수령.
만력 19.8/12	요동	요동도사, 조선 정탐을 명하는 요동순무의 案모을 수령.
만력 19.8/17	북경	한성 韓某(생일). 성절사(김응남), 하례이기 때문에 참내하는가?
만력 19.8/23	한성	조선국왕 선조, 요동도사의 자를 수령. 즉시 회자를 반송.
만력 19.9/	항주	蘇八, 절강순무의 소환에 의해 심문을 받아 공술서 《보③》이 성립.
만력 19.9/	鹿兒島	許儀後와 郭國安, 《보⑥》에 연명. 이 통보를 朱均旺에 맡김.
만력 19.10/24	한성	진주사(한응인), 선조 상주문을 휴대하고 한성을 출발.
만력 19.11/2	북경	성절사(김응남), 한성으로 귀환.
만력 19.11/4	북경	요동도사 앞으로 선조 회자, 북경에 전달. 만력제, 선조의 통보를 嘉賞함.
만력 19.11/11	북경	병부, 선조의 회자에 따라 명국 연안의 방비 강화를 실시하도록 題奏.
만력 19.11/29	북경	琉球 조공사(정례), 명정부로부터 연향 접대를 받음.
만력 20.2/18	북경	진주사(한응인), 명정부로부터 연향 접대를 받는다.
만력 20.2/19	북경	병부, “조선의 군신은 征明嚮導의 무고에 통분”이라는 취지를 題奏.
만력 20.2/28	북경	《보⑥》를 휴대한 朱均旺, 漳州 객선에 탑승해 大宰港에 이르러, 하선.
만력 20.3/7	북주	진주사(한응인), 賜宴을 받고 귀국을 허가받음.
만력 20.3/8	북주	예부의 제주에 의해 만력제로부터 선조에게의 격려를 위한 칙서가 나옴.
만력 20.3/	부산	朱均旺, 복건 순해도의 심문을 받아 공술서 《보⑤》가 성립. 《보④⑥》제출.
만력 20.4/13	한성	고니시유키나가 등 제 1군, 부산에 상륙(임진왜란의 발발).
만력 20.4/30	개성	선조, 한성을 포기하고 개성 방면으로 피난.
만력 20.5/2	북경	진주사(한응인), 개성 행궁에서 선조에게 복명.
만력 20.5/10	평양	임진왜란의 제1보가 북경에 닿음.
만력 20.6/	성천	林世祿 등, 왜정 탐색을 명목으로 요동으로부터 파견되어 선조와대면.
만력 20.8/17	의주	정탁, 薛藩의 상주문과 《보⑥》의 사본을 입수.
만력 20.9/2	의주	薛藩, 명의 구원칙서를 받들어 선조와 대면.

史料原文

【史料1】《報②》陳申의 陳報

: …擬今年三月入寇大明, 入北京者, 令朝鮮爲之向導, 入福·廣·浙·直者, 令唐人爲之向導, …
…
: …十二月二十五日, 關白又差和尚, 來琉球國, 備稱「倭王擬八月興兵, 襲取大明, 入南京, 一入浙江, 一入福建, 大樹降旗, 盛載金銀, 反間, 令唐人爲之勾引, 三省降服, 攻入北京, …」…

【史料2】《報③》蘇八의 供述

: 方自古登, 乘見各國降服, 意欲別造新船, 糾合被擄唐人, 充爲向導侵犯中國, 彼唐人, 聚有妻室, 生有男女, 各不順從, …

【史料3】《報①》鄭迥의 陳報

: 關白, 聞琉球國, 未敢加兵, 遂起兵, 戰勝朝鮮, …

【史料4】《報②》陳申의 陳報

: 十八年四月, 起兵戰勝朝鮮, 得三百人來降, …

【史料5】《報③》蘇八의 供述

: 于万曆十八年二月內, 差各頭目, 領駕前船, 到于朝鮮國交界, 則室馬海島, 住泊, 差和尚往朝鮮, 說稱方自古登利害, 朝鮮驚惧, 即令大頭目男十人投降, 方自古登隨即收留于益首海島, 起蓋草房, 將前投降十人, 安插爲質,

【史料6】《報⑥》許儀後·郭國安의 連名陳報

: 五月, 高麗國貢驢入京, 亦以囑琉球之言, 囑之, 賜金四百兩, 高麗之貢倭, 自去年五月始也, 七月, 廣東嶺境澳佛狼機, 進我大明國天圖一幅·地圖一幅·犬一對·馬一對·糸段·香宝等件, 共銀五万余兩, 後[* 許儀後]下薩摩時, 道遇之, 不知如何囑付,

【史料7】《報⑥》許儀後·郭國安의 連名陳報

: 今秋七月初一日, 高麗國遣官入貢爲質, 催關白速行,

【史料8】《報⑥》許儀後·郭國安의 連名陳報

: 爲大國計, 切宜命忠義智謀之士, 統有教勇略之兵, 或二百万, 或三百万, 進屯高麗, 盡殺其官長, 其民有不從者, 皆剿之, 伏大兵于麗之左右四畔, 命麗之人與我同心者, 假麗之官誘入, 重圍四面, 火炮爲号, 攻而殺之, 山東·遼東, 各出水兵五十万, 望烟火爲号, 以擊倭奴之後, 水

陸互攻，日夜併殺，斯時也，倭不及飽食，麗不及爲応，…

【史料10】山科言經《言經卿記》天正18年〈1590〉7月19日條

一，高麗人[關白也，云々]先日堺へ着岸，今日上洛了，舟ニテ也，管弦有之，貴賤群衆也，殿下御礼申入云々，先參内云々，…

【史料11】勸修寺晴晁《晴晁記》天正18年〈1590〉7月21日條

今日四時ニかうらいのしゆ，くわんけんにて上洛，各同道申候，見物，中山殿・原源兵ト申者，宿にて見物申候，大酒也，おかしきてたち也，…すくニ大徳寺ニかうらい衆宿也，見物まいり見申候，かうらいの關白也，

【史料12】英俊《多聞院日記》天正18年〈1590〉7月26日條

一，小田原ノ様ムサタト落居，…關白殿只人ニ非ス，ムサタト天道ニテ落居ト聞へ了，…扨日本國六十余州島々迄御存分ニ歸了，不思議々々々ノ事也，高麗・南蛮ヨリモ御礼ノ使罷越，京・堺ニ逗留了，妙希代々々，

【史料13】浙江巡撫御史題(柳成龍《西厓集》卷3「陳倭情奏文」所收)

爲照，朝鮮・日本，雖并居海島，而一南一北，相距甚遙，若使日本戰勝朝鮮，則舳艫之經涉者，何止千里，羽檄之告急者，豈無片詞，況朝鮮，歲奉正朔，世受國恩，素稱禮儀之邦，各懷忠順之性，豈得因其戰勝，甘心從賊，而遽爲向導哉，或者日本有脅降琉球之意，故妄稱朝鮮之敗，以恐喝琉球，而琉球有求援中國之心，故輕信日本之言，以播告閩越，未可知也，第風聞海外，雖難懸斷有無，而事係軍情，必須遠行偵探，

【史料14】兵部咨(柳成龍《西厓集》卷3「陳倭情奏文」所收)

案呈到部，擬合就行，爲此合咨前去，煩照來文事理，卽差的當通事，星夜前往朝鮮國內，偵探日本關白，有無入寇，戰勝朝鮮，朝鮮國王果否聽信，造船向導，逐一細加體探，務得的確情形，或徑自移檄彼國陪臣，令其卽爲啓知，從實奏報等因，

【史料15】朴東亮《寄齋史草》上，萬曆19年5月4日條

根曰…秀吉雖狂悖，必不得犯天朝，而我國在至近之地，橫受其禍，則極可憂也，況聞諸使日本者之言，則必無發動之形，雖發亦不足畏，若以此無實之言，一則驚動天朝，一則致怨隣國，秀吉之怒，未有不由此而始萌也，至於通信一事，直爲奏聞之後，万一自天朝盤問其曲折，則恐必有難處之患也，如不得已必欲奏聞，則以聞於被虜逃還人爲辭，則似不至大妨，

【史料16】申靈《再造藩邦志》卷1

深言，近日福建等處，皆奏，汝國導倭，欲犯順，朝中論議藉藉，閣老獨力保之，以爲，必無是理，且言，朝鮮節使，今且至，必有報變文字，如無則果可疑也，科道官，或欲上本，待汝國使臣至皇京，請鞠問得情者，閣老曰，事未可知，先鞠使臣，非柔遠之道也，以此論議少寢，特待汝國

之報變与否，而處之矣，今得汝書，閣老亦甚喜，使我先報路中，故來，

【史料17】崔崐《簡易集》卷1「辛卯奏」

臣查得，先該本年三月內，日本國對馬州太守宗義調，刷還被虜人金大璣等，供說，在彼地，名昌山殿州，聽得國王盛具戰艦，擬於今年入犯大明，續該本年五月內，有倭人僧俗相雜，一起十余名來到，說稱，日本關白平秀吉，用兵併吞諸島六十余州，琉球·南蠻諸國，亦皆歸服，爲緣嘉靖年間，遣使朝貢，大明拒絕不納，世懷怨恨之故，擬於明年三月間，入犯大明，兵船所經，慮或攪擾貴境，若得大明許和，事可得解，又該本年六月內，對馬島宗義調所遣伊男義智，來到浦口，稱有警急，因說，日本關白大治兵船，將犯大明，貴國地方，并必被擾，若貴國先報大明，使得講和，可免此患等因，

【史料18】崔崐《簡易集》卷1「辛卯奏」

臣何不幸，得此於閩越之間，至于上聞朝廷，伏惟天地日月，必不以此疑臣，臣又不敢爲此多弁，惟復恐臣之事上，誠或不至，有以致之者，仰謁俯躋，若無所容，…臣已行邦內沿邊守將，嚴謹軍火，如遇賊船，不揀犯境過境，輒便截殺外，敢望朝廷，別勅海道備倭等官施行，要之有備無患，不勝幸甚，爲此謹具奏聞，

【參考1】《宣祖實錄》卷26，宣祖25年5月戊子(29日)條

時變起倉卒，訛言佞播，遼左煽言「朝鮮与日本連結，詭言被兵，國王与本國猛士避入北道，以他人爲假王，托言被兵，實爲日本嚮導」，流言聞於上國，朝廷疑信相半，兵部尙書石星，密諭遼東，遣崔世臣·林世祿等，以採審賊情爲名，實欲馳至平壤，請与國王相會，審其眞僞而歸，

토론녹취문

○주 제 : 조선침략 전야의 일본정보

○발표자 : 米谷均 연구협력자

○일 시 : 2003. 12. 20(14:20-16:20)

○장 소 : 동경, 일한문화교류기금 회의실

○참석자

- 한국측 : 손승철, 조광, 정구복, 한문중, 홍성덕, 박재광

- 일본측 : 吉田光男, 田代和生, 六反田豊, 伊藤幸司, 米谷均, 橋本雄

토론문

정구복 : 예, 정구복입니다. 米谷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조선침략 전야의 일본 정벌이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 제목이 그 조선침략 전야의 일본정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룬 내용은 일본이 조선 침략하는 정보가 조선과 명나라에 어떻게 흘러들어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아, 이에 대한 치밀한 실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 이 제목에 맞는 논문이라면 조선침략 정보의 사전유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쳐야 하지 않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米谷 :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조선침략 상황의 사전 유출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유출된 정보는 조선에 침략이 아니고, 명나라에 침략하겠다는 征明, 이른바 征明情報가 주된 내용이구요, 그리고 그것을 조선이 도와준다는, 뭐 이걸 터무니없는 정보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朝鮮侵略前夜の日本情報》란, 뭐랄까요, 日本關連情報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일본관련정보, 아니면 日本有事情報라고 해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구복 : 아, 그거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은 秀吉는 명나라를 치겠다고 하는 정보를 조선침략 이전 45년 전부터 유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을 친다고 하는 정보를 사전에 유출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지, 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米谷 : 외국침략을 하기 전에 그 정보를 흘린다는 극히 독특한, 豊臣秀吉 독특한 정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豊臣秀吉, 그 다음의 德川家康의 차이는요, 뭔가 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퍼뜨리는 성격이 아주 강하고, 그것은 국내에 있어서도 국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개성적이고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秀吉은. 단 중요한 일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몇월 며칠에 부산에 상륙하겠다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

다. 막연한 말을 합니다.

조광 : 고려대학교 조광입니다. 米谷 선생님 논문은 한국, 일본 및 중국측 사료를 활용해 가지고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명에 대한 침공 계획설이 명에 전달되는 과정을 잘 밝힌 논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문의 논제 범위를 뛰어넘어 임진왜란 연구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연구자에게는 논제를 선정할 권리가 있고, 그 논제에 대해 성실히 연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米谷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의무도 비교적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각은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각에 머물지 말고, 일본측 자체 내에서 전쟁 방지의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밝혀 나가려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전쟁 발생 원인설에 대한 연구로부터 전쟁 당시에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연구의 시각으로 전환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시각은 새로운 한일 관계사의 전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코멘트에 대한 대답은 굳이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혹시 米谷 선생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논문 내용과 관련이 된 질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허구적 망상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구적 망상, 예를 들자면 조선이 대마도에 종속이 되었다든지, 조선통신사, 혹은 바리냐니가 복속 진공사로 인식했다는 것과 같은 허구적인 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망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일본에 존재했겠는가. 존재했는가. 만약 일본 전국이 집단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망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건강한 비판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만일 이 비판의식이 존재했다면, 그 비판의식이 일본사회의 주류적 변화를 형성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빨리 끝내라고 옆에서 압력을 주는데...(웃음)

米谷 : 네, 여러 가지 귀중한 의견을 감사합니다. 저어,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 이 보고를 들으신 한국의 선생님들이 당연히 느끼실 의문이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이 전쟁을 왜 막을 수 없었느냐, 그,

전쟁방지에 실패한 원인 관련에 대해서입니다. 저, 뭐라고 할까요, 단 그 당시의 사람들이 120프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조선에 출병하자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속에서는 아주 싫어하면서 참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許儀後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아마 秀吉은 실패할 것이라고, 왜냐면 출병하기 전에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고요, 발리나노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1592년, 침략이 끝난 후인데요, 薩摩에서 유명한 농민봉기, 梅北一揆라는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반란이라고 할만한 성격이었습니다. 저, 豊臣政權이 너무나 거대한 존재이기에 그러한 반란은 모두 근절되어 버렸습니다. 저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秀吉의 망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당시 일본인들에게 없었냐는 의문입니다. 현대인이 보면 망상과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 그렇게奇怪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의식이 있던 인물, 저어, 글썄요,

北島 : 아주 적지요.

米谷 : 적습니다.

北島 : 島井宗室, 그리고 多聞院英俊.

米谷 : 多聞院英俊이군요. 여기 사료 12입니다. 실제로 多聞院英俊의 경우는 전쟁이 발발한 후에 잔인한 짓을 한다고, 그리고 죄없는 조선인들이 연행당해서 불쌍하다고, 어마어마한 기도, 엉뚱한 기도라는 식으로 코멘트하였습니다. 저,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주류였다 하면, 아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적은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한정된 사람들입니다. 뭐, 마음 속에서 생각해도 그것을 입에 다물지 못하는 시대라고 할까요. 그래도 예를 들면 秀吉의 유명한 三國國割計畫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본과 조선, 일본·조선과 중국이었나요? 일본·중국·인도예요? 일본·중국·인도를 분할한다고, 天竺에서 本朝까지네요. 뭐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도 거의 어이없어하고 있었습니다. 영토분할, 세계정복이라고 할까요. 이상입니다.

吉田 : 그 외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 그럼 北島선생님.

北島 : 지금 질문에 대해서인데요, 전쟁을 막는 수단이 없었냐는 문제인데요. 반대로 秀吉이 왜 해외정복까지 단행했는가, 이 부분부터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秀吉이 나오기 전, 아시다시피 일본은 100년간 전국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시대였다는 거죠. 전쟁에 의해 통일한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585년에 秀吉이 關白이 되면 가신 중에서 영지를 갖고 싶어하는 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부분은 통일해 버렸죠. 하나로 묶었다, 묶여졌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다른 토지가, 영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외에 나가서 조달한다는, 그런 점에서 벌써부터 해외에 눈을 돌리면서 통일해 간다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영토를 통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의 大名들은, 秀吉이 아직 信長の 가신이었던 시기에 이미 대명이었던 島津라든가 德川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토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秀吉 아래에 들어가서 대명이 된 加藤清正이나 鍋島直茂 같은 사람들은 전쟁하고 싶어했죠. 이와 같이 대명 중에도 秀吉의 해외파병에 대해 소극적인 그룹과 적극적인 그룹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秀吉의 해외정복사업이라고 할까, 해외, 명나라와의 전쟁에 대해 땡땡이 친 사람은 영지를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해외파병에 대해 마음속에서 비판을 갖고 있어도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秀吉은 해외로 손을 뻗는 일본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객관적인 이유인데요, 이것은 좀 어려워서 역시 명나라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위 저하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안과 밖의 두 사정을 아울러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米谷씨의 보고에 대해서 적어, 정보가, 뭐라고 했냐, 그, 응, 처음부터 정보를 흘렸다는 것.

米谷 : 아, 그, 전쟁하기 전에 소문을 퍼뜨렸느냐 하는 부분.

北島 : 아 네, 秀吉의 명을 정복하겠다, 해외에 병사를 보낸다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1585년 때, 關白이 된 것이 7월이고, 그 9월 단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신들에 대해서 영지를 너희들을 위해 증가시켜 줄테니까 명까지 정복하겠다고 말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막연한 말투였습니다. 제2단계는 1587년, 秀吉이 九州를 정복했을 때입니다. 이에 의하여 대륙에 병사를 보낸다는 것이 꽤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제2단계. 제3단계가 1590년의 조선통신사 방일인데 여기서 들었던 정보가 구체화, 확실하게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그 秀吉이 명나라를 정복

하겠다는 정보가 흘러갑니다. 그때까지는 일본국내의 비밀로 했었는데 점차 밖에 들려가서 커져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吉田 : 네, 손승철 선생님.

손승철 : 米谷 선생님의 논문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림대학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아주 그, 사료를 통해서 좋은 논문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조선이 대마에 종속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조선관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일본인들이 그러한 조선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역으로 반대로 고려말에 박위나 또는, 조선초의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에 관해서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히데요시의 총무 사령을 요즘에는 히데요시의 평화성을 논증하는 논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米谷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北島 선생께서 침략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침략의 원인에 대해서 혹시 米谷 선생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제 2분과에서는 위사, 임진왜란, 통신사에 대해서 발표,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근세의 한일관계가 조선전기의 위사라든지, 또는 국서 개작, 위조, 또는 조선침략이라든지, 조선사절을 조공사절로 둔갑시킨다든지, 이런 국가와 국가의 외교 관계가, 이렇게 거짓말이라든지 또는 위조라든지, 또는 기만이라든지, 또는 침략이라든지, 또는 왜곡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한일관계를 米谷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뭐, 대답 안해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米谷 :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서, 먼저 첫 번째, 조선은 대마도에 종속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본인의 전통적 조선관이었는가 하는 점인데요, 실은 저는 전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秀吉의 이 시대, 16세기 말쯤에, 조선은 대마에 종속한다는 게 秀吉의 개인적인 망상으로 끝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은 대마도에 종속한다는 시각이 중세 계속되었다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도 秀吉의, 그, 루이스 후로이스가 이것을 썼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그, 秀吉과 같은 권력자들의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잘 메모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 秀吉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해 가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해동정이네요, 일본에서는 應永外寇라고 합니다. 이것을 당시의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면 秀吉의 단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蒙古襲來의 기억이, 저, 玄蘇의 입에서 조금 나옵니다. 秀吉의 단계에서는 이것은 특히 나오지 않습니다. 몽고습격 때에 몽골과 고려가 하나가 되어 대마도를 공격하였다는 기록, 이것은 조금 나옵니다. 그는 景輒玄蘇, 대마도 외교승이 假道入明 요구를 할 때 조선측이 어떻게든 승낙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 대마도에 심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문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北島 : 일본이 명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조선의 길을 지나가게 하라고.

米谷 : 그 때, 그때 말인데요, 조선측이 안된다고 하지 않으니까 景輒玄蘇는, 일본은 사실은 고려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다고, 그것은 원나라 때 고려와 원나라가 함께 일본에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갚게 원망하고 있으니까, 이쪽도 원한이 있다고 하는 협박도 이 문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인데요, 이것은 별명 豊臣平和송이라고 불렀습니다. 藤木久志 선생님이 제창하셨습니다. 단 藤木 선생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평화를 위한 훌륭한 명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영원히 전쟁을 한다는, 저도 마지막 부분에서 썼는데요, 바로 공포의 평화령이라고 할까요. 세계평화를 위해 영원히 전쟁하겠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평화령입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서정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쟁을 평화이다 라는 설명이 됩니다.

北島 :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을 쓰니까 이상해지거든.

吉田 : 이상해요. 당시 사용하지 않았죠.

米谷 : 천하를 靜謐(평온하게 하는 것 : 녹취자주)하려고...

北島 : 때문에 그쪽이 좋다.

吉田 : 그러니까, 권력자에 의한...

米谷 : 그래요 권력자. 그러니까 모든 무력을 권력자가 독점한다고. 다시 말하면 각각은 싸우면 안된다고 금지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싸우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자기가 하는 싸움에 대해서는 부하들은 전면적으로 협력하라고. 혹시 내가 하는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놈은 전력을 기울여 무너뜨리겠다고,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吉田 : 음, 좀 어렵다.

北島 : 그러니까 내 말은 평화라는 말을 쓰니까 이상해진다고. 교과서에 쓰려고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 교과서 말예요, 어디에선가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秀吉은 평화주의자라는 식으로 이해해 버린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米谷 :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해 전쟁을 한다든가.

손승철 : 복잡해집니다.

北島 : 그래서 좀 설명해 드리면, 대명이 영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 영지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와 六反田과 여기서 경계선을 긋고 나는 이쪽, 당신은 저쪽,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나 秀吉이 관백이 되면서 자기는 전세계의 정상에 올라간 자라고, 니들 전쟁 그만하라고. 자기가 그것을 모두, 그 영역을 확정해 주겠다고. 그래요, 미국과 똑같죠.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이 평화령, 평화령의 공포입니다.

米谷 :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거짓과, 왜곡과 위조·개찬, 그러한 여러 요소들, 일조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인데요, 뭐 일한관계, 일조관계, 특히 전근대에 있어서는 일본측의 주관과 조선측의 주관이 딱 일치한 일은 거의 없다고 할까, 항상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실은 둘 다 자신에게 온 외국인은 조공사절이라고, 朝貢分子라고 할까요, 나한테 복종하러 온 것이다, 우리들 무리에 들어오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 부분은 공통하고 있습니다. 조선측에서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일본측의 경우, 이 공포의 삼단논법이 나오는데요. 저어, 그리

고 그 다음에 정보도 말입니다, 정확한 정보보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효과를 발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 발표는 이 잘못된 정보가 조선측에 얼마나 큰, 뭐랄까요, 큰 피해라고 할까요, 폐라고 할까요, 끼친 케이스입니다만, 반대로 일본측에서의 오해가 전쟁회피에 연결된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徳川家康 때입니다. 徳川家康은 豊臣秀吉과 비교하면 평화적이고 相對的으로 외국에 대해 선린외교를 전개했다는 이미지가 일반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외국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외교, 일조관계를 맺거나 하였습니다. 동시에 家康도 역시 아주 호전적이라고 할까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있어서도 국외에 있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1609년의 류큐침략입니다. 이것은 薩摩의 류큐침략을 家康이 허락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류큐측이 일본에 대해서 御禮를 게을렀기 때문에 괘씸하다면서 시비를 건 것이었습니다. 御禮 사자를 家康에게 보내지 않았단, 괘씸하다고, 그래서 공격한다고. 실제로 島津側은 이길 수 있다고 보증하였기 때문에 공격했습니다. 한편 조선측인데요, 이 1609년의 2년 전인 1607년에 조선사절, 회답겸쇄환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惟政, 松雲大師 惟政 일행이 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측, 家康의 주관인데요, 家康의 주관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전쟁상태가 끝난 것이 1605년, 유정이 家康에게 왔을 때입니다. 저, 그를 家康은 服屬使節, 御禮使節이라고 일방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吉田 : 죄송한데요,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米谷 : 그래요. 그런 식으로 오해했다고.

吉田 : 마무리짓고 좀 끝내주시고요. 네, 이 부분은 통역해 주십시오.

米谷 : 잠깐만요.

吉田 : 저기 저, 이제 시간이 없어요.

田代 : 오늘 주제, 발표 중에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좀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吉田 : 그럼 田代씨, 부탁드립니다.

田代 : 저, 두 가지. 그, 오늘 발표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그, 남방경로에 의한 엉뚱한 정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①부터 ⑥의 사료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사료는 결국 琉球復權, 그리고 그 전에 薩摩가 있지요, 즉 지도에서 보면 남방경로. 바로 이 남방의 薩摩・琉球・福州, 이것은 류큐무역이죠.

米谷 : 그리고 平戸도 있습니다.

田代 : 平戸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 薩摩가, 항상 이 사료속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薩摩란 秀吉에게 정복당한 입장이라는 점. 그 속에서 정보가 엉망이 되었다는 이유 중에, 피해자 입장에서 본 秀吉의 의도, 이것을 펴뜨릴 일이 있는지 어떤지. 즉 이 ①부터 ⑥까지의 사람들의 바탕이 된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즉 薩摩에서 왜곡된 정보가 있는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지가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정보가 명나라에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병할 때, 즉 文祿의 役 때에 명군이 조선측으로 참전하겠다는 일이 아주 빨리 결정된다. 이에 대해서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함께 공격해 오면 큰일이다 하는 정보가 중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다. 반대로 조선에서 SOS를 보내 온다. 그러면 이 조선의 위기에 대해 오히려 스스로 참전하는 게 낫겠다고. 이런 영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파병의 시기로 이어져 가는지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 이 정보가 결정할 요소가 되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吉田 : 그럼 米谷씨.

米谷 :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어, 본문 중 2페이지네요, 2페이지 2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鄭廻, 陳申이라는 보고자, 이들은 당연히 류큐입니다. 蘇八은 平戸 혹은 薩摩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薩摩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許儀後는요, 島津義弘과 같이 京都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그 때 정명계획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秀吉의 얼굴도 본 것 같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生情報이라고 할까, 권력에 가장 가까운 정보입니다. 그리고...

손승철 : 지금 너무 길어서, 통역도 제대로 안되는데... 간단하게 하고, 통역을 하고 합시다.

米谷 : 그래서 그 피해자인 薩摩, 저, 피해자 입장으로서의 감정은요, 許儀後의 보고 속에 있는가에 대해서인데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백 秀吉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祖國인 大明에 이 정보를 알려서 秀吉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田代 : 그렇지요, 네.

吉田 : 우선 첫 번째, 결론이 나왔습니다.

米谷 : 두 번째는요, 이 虛偽情報, 許儀後 등의 江南情報가 명나라의 朝鮮援兵 결행을 앞당길 요소가 되었는데에 대해서인데요, 저어, 제법 어려운, 저, 단 큰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실은 원병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조승훈이고, 두 번째가 이여송이네요, 이것이 대규모 파병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히 속을 탐색하면서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요동문제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日朝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田代 : 그러니까 이 거짓정보에...

米谷 : 아니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사료적으로는 좀, 저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다고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田代 : 단순한 유언비어는 아닌가요.

손승철 :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식으로 하고...

吉田 :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정찰이고, 두 번째가 본격적으로 간 거죠.

米谷 : 글썄요 정찰이라고 할까, 하지만 첫 번째 때도 아주, 저어, 첫 번째 전에도요,

더 소규모의 정찰이...

北島 : 아니, 틀립니다. 그것은.

吉田 : 저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田代 :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吉田 :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깐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손승철 : 吉田선생,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회는 제가 아닌데, 단답식으로 하고, 단답식으로 답변하고 알아서 끝내자구요.

吉田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을 뿐입니다. 米谷氏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저것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돼요.

米谷 : 저어.

吉田 : 손승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米谷 : 알겠습니다. 정찰부대를 파견할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1차 파병. 그리고 제2차 파병은, 그것은 평양에서 명군이 패배한 후입니다. 그 일에 충격을 받아서.

橋本 : 이제 충분하지 않아요?

田代 : 이제 됐어요.

박재광 : 네, 박재광입니다.... 먼저 저하고 유사하게 田代 선생님이 하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철 : 사회자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고, 간

결하게 답변하여, 빨리 끝냅니다.

吉田 : 알겠습니다.

박재광 : 첫째, 필자께서는 히데요시의 정명계획이 잘못된 정보가 어떤 단순한 유언, 풍설이 아니라 풍신정권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조작의 결과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보조작이라고 단정을 한 이유하고, 그렇다면은 정보조달의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설의 해석과 관계된 문제인데, 논문 8페이지 첫 째줄에 좌의정 유성룡이 만약 이 진주가 일본인의 귀에 들어갈 경우 대처하기 어려운 귀찮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강하게 반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寄齋史草를 찾아봤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寄齋史草의 어디를 보고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米谷 : 네, 그럼 간단한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어, 이 유성룡의 발언은요, 자료 15, 박돈양의 《寄齋史草》에 나옵니다. 저어, 저기, 中村 선생님의 논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인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 秀吉의 정명계획은 의도적으로 유출시켰습니다. 앞 부분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정명하겠다는 것을 1590년 봄의 단계부터 여러 외국에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1페이지의 서론부분에 조금 썼습니다. 저, 국서를 가지고 주변제국에 대한 정보조작의 하나로서는 조선이 일본에 복속했다고 하는 정보, 이것도 의도적으로 유출시켰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薩摩나 류큐까지 퍼지고, 남방경로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시작에는 역시 의도적인 정보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吉田 : 그것은 구체적으로 국서로 한 거지요.

米谷 : 저어, 前者에서는 국서입니다, 국서.

박재광 :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조작해서 그것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풍신정권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면은 어떤 방법이었

는지를 묻고 싶은거죠.

吉田 : 국서하고 확실히 대답하지 않았지요.

米谷 : 아, 국서, 국서입니다. 한문으로 쓴 국서.

박재광 : 아, 그리고 원사료 관련해 가지고서, 寄齊史草의 내용, 아까 말씀하신 그 史草의 원래 내용은 복건과 일본이 그리 멀지 아니하니, 만일 이 보고가 일본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의심의 틈이 생겨 별의 독을 불러들인 일이 없을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피차 모두가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을 것이므로, 결단코 주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실제 이 내용은 필자가 말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성룡은 단순히 외교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을 반대를 한 것이지, 단순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귀찮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다 라고 보면은 해석상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것은 결국엔 필자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米谷 : 네, 문제 부분을 찾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기, 여기는 현대어로 번역하는 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결과, 저어, 해석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예요. 저어, 좀 이따가 검토하겠습니다.

吉田 :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마지막에 한 분만 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한문종 : 간단한 질문....

吉田 : 네, 한문종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한문종 :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결론 부분에 12쪽에 주 44.

손승철 : 2시에 시작했으니까... 20분에 끝냅시다. 앞으로 10분.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

단하게.

한문중 : 네, 그 조선이 대마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명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과시하는 借重之計라는 정보 조작 전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서술이 요네타니 선생의 견해인지, 아니면 주 44의 저자인 민덕기 선생님의 견해인지 불명합니다. 민덕기 선생님의 저서에는 조선이 「借重之計」를 견지하였다는 것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끝에 민덕기 선생님의 저서를 주로 처리함으로써 그것이 민덕기 선생님의 견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중 : 두 번째 질문입니다.

吉田 : 일단 하나만.

米谷 : 저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글썄요,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고, 그 정도까지는 민 선생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실시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저어, 사실 이 借重之計에 대해서는 저는 민선생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어, 명군이 1600년에 한반도에서 철퇴했는데요, 그 후에도 마치 명군이 조선에 남아 있는 것처럼 가짜정보를 대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차증지계입니다. 저어, 민선생님은 스스로 조선왕조에서는 대마도 혹은 일본측이 그것을 정말로 믿어준 것인지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협박으로서 사용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吉田 : 잠깐만요. 그것은 한문중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제일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그, 주석에서 민덕기 선생님에 관해서 써 있는데 이것은 당신의 견해인지, 아니면 민덕기 선생님의 견해인지,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米谷 : 아니, 민 선생님...

吉田 : 아니아니, 이제 결론을 내야 되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米谷 : 그러니까 제 견해로 그렇게 썼습니다.

吉田 : 그런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米谷 : 아니, 민선생님도.

吉田 : 아니, 그런 필요없는 설명은.

米谷 : 민선생님도 뭐 현 시점에서 정보조작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저어, 이게 제 의견이라고 말하면 민선생님께 죄송스러워요.

吉田 : 아니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는 의견이시거든요.

米谷 : 마지막에, 그래서 이 가짜정보, 일본측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吉田 : 아니 평가하고 싶으면 자신의 의견으로서.

米谷 : 아니오, 제 의견인데요.

吉田 : 아니라니까요. 저기요, 한문종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셔야 해요. 당신이 결론지으려고 하니까, 일부러 민덕기 선생님을 인용해서 마치 민덕기 선생님의 의견인 것처럼 쓰고 있어요.

米谷 : 아, 알겠습니다. 이 주 44번은 [차중지계] 직후에 들어가야 했어요. 네. 이거라면 됐지요. 네, 이것으로.

吉田 : 네. 그러면...

米谷 : 차중지계라는 것은, 이것은...

한문종 : 그것과 관련해서 조선이 借重之計로 대마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일본과의 통교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米谷 : 아, 倦厭策이군요.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측의 의견은 그랬다고. 다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차중지 계가요, 한반도에 명군이 진을 치고 있다, 무섭다, 이 정보를 대마에서 家康한테 가서 제법 효과가 있었다고. 정말 이 가짜정보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吉田 : 이제 그만. 답변이 됐습니다.

손승철 : 우리 홍선생, 하나만.

吉田 : 제가 사회자입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규칙에 어긋난 일이에요.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마음대로 사회자가 되면 안됩니다.

손승철 : 잠깐만요, 저, 2시 2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吉田 : 아니 그런 것은, 저기요, 당신이 마음대로 홍성덕 씨를 지명할 수는 없어요. 저는 홍성덕 씨가 손을 드는 것을 못 봤습니다.

손승철 :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吉田 :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멋대로 홍성덕 씨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이상하잖아요. 그건 지금까지의 규칙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손승철 : 미안합니다. 저는...

吉田 : 국제회의에서 그런 일이 용납되겠습니까.

손승철 :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吉田 : 저는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셨고요.

손승철 : 지금 우리가 발표, 토론 시간을 합쳐서 2시간 예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2시간이 안됐어요, 그래서 한 명은 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홍선생이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홍선생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사회자로서 지명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吉田 : 알았습니다. 그러한 제안이지요. 그러면 손승철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서 홍성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홍성덕 :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손승철 선생님의 질문을 답변을 하는 과정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조공사절로 파악하는 것은 양국이 다 동일하다고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조선전기와 후기에 조선에서도 역시 똑같이 조공사절로 파악했다는 의견인지, 그리고 조공사절로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외국과의 관계를 내정의 정치력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그 방법이나 성격, 범주에 있어서 두 나라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米谷 : 저어, 전기와 후기가 같았었느냐에 대해서인데요. 글썄요 저, 차이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온 사절은 조선전기에는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국왕을 만나봤구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상태라서 조공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반대로 후기에서는 외국사절이 서울에 올라가는 일은 중국의 책봉사를 제외하고 없어집니다. 즉 그러한 조공자들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픽션이, 그 構圖가 없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관념적으로는 역시 조선으로 온다, 후기라면 부산에 대마사절이 옵니다만, 속에서는 역시 그들을 조공자로 보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은 그, 조선전기 세조 때입니다, 여러 가지 불교적奇瑞가 나타나서 그래서 외교사절이 밀려오고, 그리고 환영해 준다. 그야말로 왕권의 정당성을 장식해주는 莊嚴化에 100% 이용하고 있는 증거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吉田 : 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米谷씨의 발표와 그에 대한 질문, 米谷씨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하고요, 저, 마지막으로 조선통신사의 연구정리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끝).